

율곡의 42세 작, 『격몽요결』의 서문과 1장을 통해 읽는 유교 심학의 기초와 강령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 철학·고전한학 전공
idion21@naver.com

- I. 『격몽요결』이라는 책
- II. 인문으로서의 유학
- III. 유교 학문의 목표
- IV. 삶의 길을 향한 실존적 결단
- V. 유교, 잊혀진 삶의 길

I. 『격몽요결』이라는 책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기실 자신을 향해 던진 말임을 알고 나중에 놀라는 일이 자주 있다. 가령 장자의 조삼모사(朝三暮四)가 그렇다. 종류와 개수에 변함이 없는데도, 때로 토라지고 때로 낙락하는 ‘덜 진화한 원숭이’는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이다. 철학자들은 이 우화에서 파르메니데스의 일자(一者)나,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기에 일어난다 (Quidquid fit necessario fit)”는 옛 현자의 격언을 떠올릴 것이다.

불교에 육도 윤회라는 것이 있다. 이 생에 지은 업보에 따라 곤충이나 가축으로 변할 수도 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신경 쓸 것 없고, 어차피 나중 죽어 가게 될 세상이니 그만 안도할 것인가. 천만에, 육도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은 ‘아수라’라 늘 남과 부딪치고 이빨을 드러내며, 어떤 이는 ‘아귀’처럼 늘 배고픈, 밑 빠진 독의 탐욕을 안고 산다. 누구는 ‘짐승’처럼 무지하게 살고, 또 누구는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불의 형벌을 자청한다. 보통 ‘사람’은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꽤 지나 칭칭의 장삼이사들이지. 예외적으로 삶의 기술을 닦아 ‘천상(天上)’에서 평정과 평화를 누리는 부류들도 있다. 이것이 육도의 소식이다. 그럼 윤회는? 이 수준이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 상승, 하강에 열려 있다는 희망이자 경고이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격몽요결』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여기 몽(蒙)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무지’를 가리킨다. 그 ‘무지’를 어떻게 깰(擊) 것인가? 삶의 기술과 행복이 이 ‘각성’ 혹은 깨달음에 달려 있다.

인간이 ‘무지’ 속에 있다고 말한 현자들은 많다. 소크라테스의 대표적 경구가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은 이 말을 주머니 사정이나 사회적 지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라는 처세훈쯤으로 안다. 그거, 번지수가 틀렸다. 이 물음 혹은 다그침은 실존적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겁도 없이 동백림에 들어간 적이 있다. “당신은 지금 서베를린을 떠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인상적이었다. 그 아래 갈겨쓴 낙서가 있었다. “woher und wohin?” “어디서 어디로 말이요.” 이 구절은 독일의 오랜 경구였던 듯하다. 쇼펜하우어가 이 구절에 붙여둔 노트가 남아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온다.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즐거우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래도 실감이 안 온다면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의 한 구절을 들려드릴까 한다.

눈을 뜨면, 주어지는 상황과 날마다 얽히는 씨름질 [...] 자잘한 걱정거리애 잠 못 들다 거대한 공포에 질리는 우리네 인생. 참으로 슬프지 아니한가. 일평생을 수고하고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도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른다. 삶이란 이렇게 곤고한 것일까.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이리 곤고히 여기는 것인가…….

이 탄식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이 짧은 책, 『격몽요결』을 읽을 준비가 된 것이다. 유교는 겁 없게도 성자(聖者)를 꿈꾼다. 이 외외(巍巍)의 봉우리에 종교가 아니라 인문으로 접근한다. 초자연적 권위는 필요하지 않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관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는데, 그 각성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오래된 자기 망각을 치유하고, 자신의 힘과 가치를 최고도로 실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II. 인문으로서의 유학

나는 유교의 자원이 라틴어로 아르스 비타에(ars vitae), 전통적 용어로 도학(道學), 즉 삶의 길에 관한 탐구에 있다고 생각한다. 율곡은 이를 아예 ‘학문(學問)’이라 불렀다! 『격몽요결』의 서문을 보자.

人生斯世，非學問 無以爲人。所謂學問者，亦非異常別件物事也。（* 只是爲父當慈，爲子當孝，爲臣當忠，爲夫婦當別，爲兄弟當友，爲少者當敬長，爲朋友當有信。）皆於日用動靜之間，隨事各得其當而已，非馳心玄妙，希覬奇效者也 但不學之人，心地茅塞 識見茫昧，故必須讀書窮理，以明當行之路然後，造詣得正而踐履得中矣。（栗谷，『擊蒙要訣』序）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 노릇을 하자면 공부(學問)를 해야 한다. 공부란 무슨 남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일상적 삶에서, 관계와 거래에서,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뿐이다. 산에서 한 소식을 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얻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은 잡초로 뒤덮이고, 세상은 캄캄해진다. 그래서 책을 읽고, 지식을 찾는다. 지식이 길을 밝혀줄 것이니, 오직 그때라야, 지혜가 튼튼해지고, 활동이 중용을 얻는다.

옛 '학문'은 이름 그대로 삶의 지혜를 '묻고(問) 배우는(學) 것'을 뜻했다. 지금의 대학처럼 전공이나 논문 쓰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학문은 권력이나 우월, 인정을 위한 투쟁과는 다른 지평에 있다. 목적은 오직 자기 대면을 향해 있다. 창시자 공자는 이를 '오직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 learning for myself)'¹⁾이라 불렀던 것을 기억한다.²⁾

율곡은 '학문'을 삶의 기술(ars vitae)로 정의했다.

이 '학문'은 그러나 늘 예외적이고 소수자였다. 현실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지금은 잊혀진 지식이자 기술이라는 뜻에서, 고학(古學)이라 부르기도 했다. 퇴계가 젊은 천재 율곡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것을 기억한다.

世間英才何限，只爲不肯存心於古學，滔滔盡然。其有自拔於流俗者，或才不逮，或年已晚。如君高才妙年，發軔¹⁰路，他日所就，何可量哉。惟千萬益以遠大自期，勿以小得自足。³⁾

세상에는 인재들이 넘치지만 옛 학문(古學)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도한 실용의 물결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 세속의 흐름에서 혹 발을 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재능이 안 따라주거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재능에 나이도 어리니, 인문의 바른길로 나서면 나중의 성취를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모쪼록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작은 성취에 우쭐해하지 말고…….

유교는 이 학문을 '인간의 기초'로 설정했다. 치인(治人) 이전에 수기(修己)가 있다. 이 중요성에 비하면, 의례나 사회관계, 정치과정과 가족

1) 『論語』憲問 第14. “古之學者爲己，今之學者爲人.”

2) 서양의 경우도 같은 궤적을 걸어왔다. 처음 하버드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는 서양고전의 강좌가 교육의 중심이었고, 학생들의 삶의 태도와 품성의 형성을 교육의 중심에 세웠다고 한다(앤서니 크로먼 저, 한창호 역, 『교육의 종말』, 모티브북, 2009). 그러던 것이 '종합대학'이 설립되고 학문이 분화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인문적 성찰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학문은 '연구'로 치환되었고, 여기 '정치적 공정성'이 더 이상 '가치'의 문제를 금기시하게 되면서 교육과 학문은 삶과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 『栗谷先生全書』卷14, 雜著 1, 瑣言 a_044_301d.

통합조차 부차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그런데도 전통의 유교를 바라볼 때, 이 ‘중심적 자원’은 사람들의 시선에 잘 잡히지 않는다.

III. 유교 학문의 목표

『격몽요결』은 삶의 기술에 대한 유교적 입문, 혹은 기초를 담고 있다. 서문은 이 작은 책자를 쓰게 된 동기를, 본문은 이 기획의 설계와 기초를 적고 있다. 우선 서문을 음미해보도록 하자.

『擊蒙要訣』序⁴⁾

0-1. 人生斯世, 非學問 無以爲人. 所謂學問者, 亦非異常別件物事也. 只是爲父當慈, 爲子當孝, 爲臣當忠, 爲夫婦當別, 爲兄弟當友, 爲少者當敬長, 爲朋友當有信, 皆於日用動靜之間, 隨事各得其當而已, 非馳心玄妙, 希覬奇效者也. 但不學之人, 心地茅塞, 識見茫昧, 故必須讀書窮理, 以明當行之路然後, 造詣得正而踐履得中矣.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 노릇을 하자면 공부(學問)를 해야 한다. 공부란 무슨 남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일상적 삶에서, 관계와 거래에서,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뿐이다. 산에서 한 소식을 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얻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은 잡초로 뒤덮이고, 세상은 캄캄해진다. 그래서 책을 읽고, 지식을 찾는다. 지식이 길을 밝혀줄 것이니, 오직 그때라야, 지혜가 튼튼해지고, 활동이 중용을 얻는다.

0-2. 今人不知學問在於日用, 而妄意高遠難行, 故推與別人, 自安暴棄, 豈不可哀也哉.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학문’이 일상의 리드를 위한 것임을 모르고, 아득한 목표, 고난의 삶을 고취하는 줄 알고, “아이고, 남이 알아서 할 일”이라 외치고, 지레 ‘포기해버린다. 슬프기 그지없다.

0-3. 余定居海山之陽, 有一二學徒, 相從問學, 余慙無以爲師, 而且恐初學, 不知向方, 且無堅固之志, 而泛泛請益, 則彼此無補, 反貽人譏. 故略書一冊子,

4) 『栗谷先生全書』卷27, 序 a_045_083a.

粗敍立心飭躬奉親接物之方，名曰擊蒙要訣，欲使學徒觀此，洗心立脚，當日下功，而余亦久患因循，欲以自警省焉。 丁丑季冬，德水李珥書。

내가 해주 남쪽에서 지낼 때, 한 두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선생이 될 자격도 없는데다, 또 초학자들이 방향도 모르고, 굳건한 의지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물어대면, 피차 별 도움이 안 되고, 괜한 비방만 몰고 오지 싶었다. 그래서 작은 책자 하나를 써서 결단(立心), 심신 수양(飭躬), 어버이 봉양(奉親), 대인관계(接物)의 개략을 적고, 『격몽요결』이란 이름을 붙였다. 학도들이 이 책을 보고, 세심입각, 마음을 씻고, 굳건히 여기 서서, 당장 훈련을 시작하도록 [...] 나도 또한 타성에 젖은 지 오래라, 이참에 스스로 '각성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정축년 겨울, 덕수 이이가 쓰다.

서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학문'의 성격을 정위했고, 둘째 부분은 그를 둘러싼 오해 하나를 경계했고, 마지막에는 이 책자를 짓게 된 계기를 적어두었다.

19세기 후반, 서양의 학문과 지식이 한자의 옷을 입고, 전방위적으로 번안될 때, 당연히 재래의 개념과 용어들이 새 시스템에 채용되었다. 당연히 두 용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 때로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막고 있다. '학문'은 그런 용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지금 '학문'은 분과의 지식과 그 탐구를 가리키지만, 옛적의 학문은 '삶의 길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포괄적으로 가리켰다. 이 '학문'의 토대는 인문학이었고, 사회과학이 응용이라면 자연과학은 보조 역할을 했다. 문학과 예술이 삶의 정화로서 빠질 수 없었다. 이 점에서 옛 학문은 현대의 분과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두 개념의 차이는 객관적 지식 정보와 체험적 기술에서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자가 『독서법』 첫머리에서 강조하듯, "독서는 이차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첫 번째 의미는 그 책과 지식의 현실적 적용에 있으니, 책이 삶을 변화시키는 추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책은 책, 나는 나(書自書, 我自我)"는 그 물교섭(沒交涉)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경구이다.

1. 학문의 필요(0-1)

인간의 삶은 탄생으로 완전해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문학'을

‘고전에 대한 연구’로 정의한 바 있다. 왜?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학문’인가? 율곡은 말한다. “학문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잡초로 뒤덮이고, 세상은 캄캄해진다!”

- 심지모색(心地茅塞): 마음은 개간이 필요하다. 그대로 두면, 번덕스런 자극에 무반성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반응은 나르시스적으로 고착되고, 의견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에 지배되고 말 것이다.
- 식견망매(識見茫昧): 지식은 의견 너머에서 발견하는 객관성이다. 자신의 관심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지식의 범위는 지극히 협소해지며, 또 그것들은 개인적·집단적 편견에 뒤틀려 있기 마련이다.

율곡은 여기 인간의 문제를 둘로 정리했다. ‘안으로’는 마음의 잡초가, ‘밖으로’는 세상의 캄캄함이 그것이다. 이 둘은 서로 연동되어 있다. 양면 공략이 필요하다. 마음의 개발은 이름 그대로 심학(心學)이, 그리고 지식의 확장은 이학(理學)이 한다(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⁵⁾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것이다.

심학은 불교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부분이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주자학이 받아들인 바였다. 물론 솔직히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식’, 특히 사회와 정치, 자연에 관한 실질적 지식은 불교가 충분히 개발하지 않았고, 어느 편이나 하면 소홀히 해 온 영역이었다. 주자학은 이 부문을 자부했다. 사회적 인간에게 객관적 지식, 역사와 정치에 관한 지식, 과학과 예술에 대한 노하우는 삶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율곡은 여기서 이 학문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권력과 인정, 지배를 위한 도구가 아니며, 그렇다고 탈세속의 고적이나 초월적 깨달음과도 번지수가 다르다.

유교는 이를테면 일상(日用)에서의 초월을 겨냥하고 있었다.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은 분명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유교의 ‘학문’은 ① 권력과 지배, ② 은둔과 고립이라는 두 해협을 피한 곳에 있다. 권력과 부의 현세적 야망도 벗어놓고,

5) 『近思錄』爲學; 『聖學輯要』修己, 收斂.

그렇다고 이 한심한 세상 너머에서 종교적 초월도 꿈꾸지 말라? 이 정위가 유교를 인기 없는, 소수의 예외적 선택으로 남겨두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 점을 좀 더 부연해보자.

(가) 조선 초기부터 불교와의 대결의식은 첨예했다. 카톨릭이 도입되
전, 불교는 초탈적 도피와 무책임의 종교로 이단시되었다. 가족
안에서 자아를 설정하고, 정치에 목표를 둔 유생들에게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오히려 쉬웠을 수 있다. 혹, 뜻이 있다고 해도 사회적
금기를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율곡이 열아홉에 감행한
금강산 입산은 희귀한 예외였다. 이 언급 자체가 율곡의 자기비판
을 어느 정도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 유생들이 본격적으로 대결해야 할 적(?)은 바로 권력과 지배의
유혹이었다.

퇴계가 젊은 천재 율곡에게 당부한 것을 다시금 새겨보자. 다들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경전에 코를 박고 과거시험
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남을 위한 학문(爲人之學)'은 율곡이 강조하고
유학이 설정한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어느 편이나 하면, 대극적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도학(道學)의 적은 속학(俗學)이었다. 위기지학은 일상의 최종적 승화
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적응하기보다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권력과 부, 명예 등의 가치를 경멸 혹은 무관심으로
대하라고 충고한다. 그 바탕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삶의
목표에 무지하다면, 그리고 내 자신으로 사는 법에 숙련되지 않았다면
삶은 공허해지고, 율곡의 말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리드할
수 없게 된다.”

2. 잊혀진 학문(0-2)

그런데도 이 인문에 일차적 관심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고 예외이다.
퇴계가 율곡에게 놀라고 격려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진정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이 역설에 인문의 운명이 있다.

유교는 그러나, 이 관심은 근본적이고, 결코 회피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을 자기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일이라고 강조해 마지않는다. 서문의 두 번째 단락을 다시 음미해보자.

0-2. 今人不知學問在於日用, 而妄意高遠難行, 故推與別人, 自安暴棄, 豈不可哀也哉.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학문’이 ‘일상’의 리드를 위한 것임을 모르고, 아득한 목표, 고난의 삶을 고취하는 줄 알고, “아이고, 남이 알아서 할 일”이라 외치고, 지레 ‘포기(暴棄)’해버린다. 슬프기 그지없다.

일상을 최선으로 리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전문적 학습과 도야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을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남의 일로 미루어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포기(暴棄)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기(暴棄)는 맹자의 탄식에서 왔다.

스스로를 해치는(自暴) 자와는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다. 스스로를 버리는(自棄) 자와는 더불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예의(禮義)를 비난하는 자를 일러 스스로를 해치는 자라 하고, 인의(仁義)를 실천할 수 없다는 자를 일러 스스로를 버리는 자라 한다. 인(仁)은 사람이 거할 편안한 집이요, 의(義)는 사람이 밟아야 할 바른길이다. 슬프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바른길을 버려두고 걷지 않는다(孟子曰 自暴者不可與有言也 自棄者不可與有爲也 言非禮義 謂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仁人之安宅也, 義人之安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哀哉).⁶⁾

맹자는 말한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아 태어났다. 그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지금 가시덤불에 덮여 있다. 은혜와 질식이 오래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맹자』에는 유명한 ‘우산(牛山)의 나무’라는 우화가 있다.⁷⁾ 저기 저 민둥산은 오래전 짐승들이 뛰놀던 울창한 숲이었다. 인간성의 정황이

6) 『孟子』 離婁 上, 10장.

7) 『孟子』 告子 上, 8장. “孟子曰, 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바로 그렇다고 맹자는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의 본모습을 망각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유교는 그런 점에서 고향으로의 회귀, 혹은 모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저 민둥산처럼 고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다. 유교는 플라톤처럼 그 ‘회상’을 강조한다. 그로부터 길이 시작될 것이다.

인간 내부의 잊혀진 이 가능성을 불신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포기하는 일이다. 그 어리석음을 맹자는 자포(自暴)라고 했다. ‘스스로를 해친다’는 뜻이다. 또한 그 불씨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자기(自棄)라고 했다. ‘스스로를 내버린다’는 뜻이다.⁸⁾

율곡은 이 말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인간에게 결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지식이고 기술임을 강조하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달리 인간의 길은 없다!”

3. 책을 짓게 된 경위(0-3)

율곡은 드물게 명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천재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어렵다. 질문과 의혹을 끌어안고 끄꿍대는 학인들의 애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불교의 역사에서 암두와 설봉의 고사가 생각난다. 퇴계는 책의 구절구절을 짚고, 주석을 철저히 파고드는 유형이라, 제자들과의 토론이나 강습이 아주 활발했을 듯하다. 율곡은 그러나 친절하지 않다. 제자가 한산했던 것도 관료적 삶의 번다 외에도 이런 스타일이 작용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장악했으므로, 걸음이 더디고, 기초를 헤매는 학생들을 아무래도 갑갑해했다.

선조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 해주로 낙향한 그를 주변의 학동들이 찾아왔다. 학부형들의 극성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공부의 신에게 자제들의 학습 지도를 다투어 부탁했을 것은 당연지사이다.

율곡의 짜증(?)이 이 서문에서 뚜렷하다. 어린 학동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것저것 묻는데, 질문이 한심하고 중심이 없었을 것이다.

8) 그런 점에서 ‘포기(暴棄)’는 ‘폭기’라고 읽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포기(拋棄)는 ‘내버린다’는 뜻이지만, 맹자의 ‘포기(暴棄)’는 자신의 가능성을 ‘해친다’는 강렬한 경고가 중심에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더구나 ‘진정한 학문’에 대한 이해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를테면 대치동 학원가의 kids들에게 인문과 덕성을 가르치려는 철학자의 고뇌가 느껴진다. 율곡은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작은 책자 하나를 적어주기로 한다. 그 결실이 이 책, 『격몽요결』이다.

율곡은 이 ‘학문’이 단순히 교과서를 익히고 배우는 ‘학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단단히 강조한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답하는 일이다. 한가한 사업이 아니다. 그 길을 가자면 실존적 결단이 뚜렷해야 한다. 이를테면 학생들은 ‘학원’인 줄 알고 찾아오지만, 율곡은 이곳이 ‘수도원’임을 일깨우고자 했다 할까.

IV. 삶의 길을 향한 실존적 결단

앞 장에서 유교의 학문이 사물에 관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삶의 길을 위한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길은 지금 버려져 있고, 더 이상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지금이나 사정이 비슷했다는 생각이 든다. 뛰어난 인재들이 실용학문으로 몰리고 대학은 취업사관학교가 되어가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에는 나이 든 분들의 열기가 뜨겁다. 그 훈련을 미리 해두었으면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미리 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첫 장에서 율곡이 이 기획의 전반적 설계를 말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서문이 학문에 대한 오해를 짚고, 그 망각을 탄식했다면, 대체 이 기획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이며,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적어주어야 할 것이다.

제1장은 입지(立志)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실존적 결단에 해당한다.

立志章 第一

- 1-1. 初學 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不能無清濁粹駁之異 而苟能眞知實踐 去其舊染而復其性 初 則不增毫末而萬善具足矣 衆人豈可不以聖人自期乎 故 孟子道性善 而必稱堯舜以實之曰 人皆可以爲堯舜 豈欺我哉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결단(立志)을 해야 한다.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물려서거나 게으름을 피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내 말하노니(蓋), 보통사람(衆人)과 성자(聖人)는 꼭 같은 가능성을 타고났다(其本性則一也). 비록(雖) (각자의 타고난) '기질(氣質)'에, 맑고 순수한 정도(淸濁粹駁)가 다르지만, 힘껏 지식(眞知)을 얻고, 실천(實踐)을 해나가, '오래된 오염(舊染)'을 물리치고, 자신의 '최초의 가능성(性初)'을 회복(復)한다면, 거기 아무것도 더할 것 없이(不增毫末),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萬善具足)! 보통사람이라도 성인을 기약할 수 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서, 늘 요순으로 증거했으니,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 어찌 나를 속인 말이겠는가.

1-2. 當常自奮發曰 人性本善 無古今智愚之殊 聖人 何故獨爲聖人 我則何故獨爲衆人耶 良由志不立 知不明 行不篤耳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豈可他求哉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 亦若是 我亦當以顏之希舜爲法

그러한 바, 늘 (다음과 같이) 분발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본시 선하다. 고금이 다르지 않고, 현자와 어리석은 이의 정신적 조건도 꼭 같다. (그런데) 성인은 어째서 저리 성인이 되었고, 나는 왜 홀로 보통 인간인가. 그것은 결단이 없었고(志不立), 식견이 흐릿하며(知不明), 행실이 굳건하지 않기(行不篤) 때문이다. 결단을 내리고, 지식을 밝히며, 행실을 유덕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내 손에 달려 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다. 안연이 말했다. '순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성취하면 다 그와 같다.' 나 또한 안자가 (성왕) 순을 회구하는 것을 본받아야겠다."

1-3. 人之容貌 不可變醜爲妍 膂力 不可變弱爲強 身體 不可變短爲長 此則已定之分 不可改也 惟有心志 則可以變愚爲智 變不肖爲賢 此則心之虛靈 不拘於稟受故也 莫美於智 莫貴於賢 何苦而不爲賢智 以虧損天所賦之本性乎 人存此志 堅固不退 則庶幾乎道矣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추한 용모를 아름답게 고칠 수도 없고, 약골을 강한 근육질로 만들 수 없으며, 작은 키를 늘여 길게 할 수도 없다. 이들은 이미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운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만은 의지에 따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덜떨어진 자(不肖)를 현자로 바꾸어놓을 수 있다. 마음의 '비어 있고, 또 신비한 능력(心之虛靈)'은 타고난 유전적·신체적 제약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보다 이쁜 것이 있으며, '현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랴. 그런데도 무지와 어리석음에 안주하여, 하늘이 내게 내린 본성을 훼손시킨 채 살고 있던 말인가. 이 '결단'을 품고, 견고히 물려서지 않으면, (최선의) 삶의 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1-4. 凡人 自謂立志 而不卽用功 遲回等待者 名爲立志 而實無向學之誠故也 苟使吾志 誠在於學 則爲仁由己 欲之則至 何求於人 何待於後哉 所貴乎立志者 卽下工夫 猶恐不及 念念不退故也 如或志不誠篤 因循度日 則窮年沒世 豈有

所成就哉.

(도를 향해) 뜻을 세웠다면서, 훈련에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입으로만 외칠 뿐, '삶의 길'을 향한 내적 열망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 '학문'을 향해 의지를 불태운다면, '인간성의 구현은 오직 내게 달려 있다'는 격언처럼, 그 열정이 이윽고 목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과업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고, 나중을 기약할 것도 아니다. '입지'란, 즉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는 각오 아닌가.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물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온몸에 사무쳐야 한다. 허술한 의지로, 해오던 대로, 세월만 죽이고 있다가는 주어진 생명이 다하고,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아무런 성취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1. 유교 인문의 기획(1-1)

율곡은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말하노니(蓋), 보통사람(衆人)과 성자(聖人)는 꼭 같은 가능성을 타고났다(其本性則一也). 비록(雖) (각자의 타고난) '기질(氣質)'에, 맑고 순수한 정도(淸濁粹駁)가 다르지만, 힘껏 지식(眞知)을 얻고, 실천(實踐)을 해나가, '오래된 오염(舊染)'을 물리치고, 자신의 '최초의 가능성(性初)'을 회복(復)한다면, 거기 아무것도 더할 것 없이(不增毫末),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萬善具足)!

이 선언에 주자학의 핵심 기획이 담겨 있다. 그 내부를 더 자세히 사역(思釋)해야 한다.

관건은 인간의 '본성(性)'이다. 주자학의 전문용어인 이 성(性)은 현대적으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개념이 단순히 의지의 방향이나, 심리적 경향성을 '형식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환기할 필요가 있다. 불교를 따라 주자학은 성(性)이 모종의 '실체'라고 강조한다.

일찍이 불교는 "작용시성(作用是性)"이라는 표어로 신체적·정신적 활동 자체에서 본성을 찾았다. 특히 마조 계열의 홍주종이 이 표어를 즐겨 썼다. 일상의 본성과 활동이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는 것.

주자학은 이 명제를 비판적으로 확장했다. 즉, "본성은 그 활동 자체라기보다, 그 성숙과 합리성에 있다"고 역설했다.⁹⁾ 성즉리(性卽理)라는

9) 대표적 구절을 하나 인용한다. 『朱子語類』釋氏, 59항. “作用是性. 在目曰見, 在耳曰聞, 在鼻曰嗅, 在口談論, 在手執捉, 在足運奔, 卽告子生之爲性之說也. 且如手執捉, 若執刀胡亂殺人, 亦可爲性乎. 龜山學龐居士云, 神通妙用, 運水搬柴, 以比徐行後長, 亦坐此病.

캐치프레이즈가 그 뜻을 담고 있다.

누구나 이 구현의 조건(體)을 갖고 있다. 방해가 없다면, 이 토대는 자발적으로, 적절한 자극과 도전을 계기(感)로, 신체적·정신적 반응(應)으로, 자신의 잠재적 힘과 권능을 생산적으로 발휘(用)해나갈 것이다.

문제는 방해물들이다. 심신의 잠재적 에너지는 자극을 수용하고 반응을 선택해나가는 구조를 통해 발현된다. 이 구조를 감당하는 것이 각자의 '성격'이다. 주자학은 이를 심(心)이라고 부르고, 유전적 결정과 환경적 제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기질(氣質)'이라고도 부른다. 도야되지 않는 성격은 조야하고 미숙하다. 거기 어지럽고 해로운 자극들이 이 구조를 더 왜곡시킨다. 이 안팎의 장애로 하여, 본성은 자유롭게 건강하게 발현되지 못한다. 주자학은 외적 자극을 제어하고, 내적 성격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각자의 성격은 에너지의 발현을 담당하는 통로이다. 어떤 자극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반응을, 어떤 강도로, 얼마만큼 내보일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기질(氣質)'이라 부른다고 했다.¹⁰⁾

우리의 성격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미숙하고 조야하다. 지식은 몽매하고 판단력은 편협하다. 주자학은 이 결합이 기본적으로 타고나며, 후천적 경험과 환경에 따라 더 강화되기도 하고, 또 약화되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율곡은 이 원론의 인식에 따라, 유교의 과제를 교기질(矯氣質), 즉 성격의 편향과 결합을 교정하려는 방법적 노하우로 정위했고, 이 자각에 따라 그의 유교 프로젝트를 체계화해나갔다.

그의 대표작인 『성학집요』는 그 대표적 성과이다. 개인적 품성을 어떻게 도야하고, 사회정치적 질서와 평화를 그 베이스 위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유교의 장대한 스케일과 구조가 이 한 책에 집약되어 있다. 유학은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social character)을 아울러 교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법적 지배와 강제는 2차적 선택으로

不知徐行後長乃謂之弟，疾行先長則爲不弟。如曰運水搬柴即是妙用，則徐行疾行皆可謂之弟也。”

10) 그런 점에서 용어에 유의해야 한다. 주자학의 전문용어인 '기질(氣質)'은 정신적 측면에 한정할 때, 일상적 용어인 기질(temperament)과 성격(character)을 아우른다. 기질이 정신적 에너지의 반응 속도에 관계된 말이라면, 성격은 반응의 건전성에 관련되어 있다. 윤리학적으로는 기질이 아니라 성격이 문제임을 짚어두어야겠다. 언필칭 '기질(氣質)의 청탁수박(淸濁粹駁)'이란 개개의 성격 안에 내포된 판단의 합리성(淸濁)과 윤리적 품성(粹駁)을 가늠하고 있는 말이다.

남겨두고 사회적 교화와 권력의 계몽을 강조했다. 이 주제는 우선 놓아두기로 한다.

각자의 성격은 병들어 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인다면 주자학의 프로젝트와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라 하겠다. 맹자는 “손가락 하나가 굽어 있다면, 아프지도 일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집을 팔아 명의를 찾으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이 굽은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탄식한 바 있다.

현대는 개인의 이기심을 존중하고, 그 사회적 충돌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유학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 성격이 문제이며,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여기, ‘근대’와 ‘유교’가 불화한 근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¹¹⁾

다시 유교로 돌아가자.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통찰(眞知)과 부단한 노력(實踐)이다. 왜 통찰이 필요한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더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의지와 생각은 드러나 있지만, 그것을 구동하는 무의식적 동기나 메커니즘을 ‘의식화’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나아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자신의 본질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소크라테스가 그노티 세아우톤, “네 무지를 자각하라!”고 요청할 때, 선불교의 “너는 누구냐”는 물음, 나아가 성경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는냐”는 은유는 인간의 현실이 무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공통의 지반이다.¹²⁾

성격의 결함들은 일차적으로 ‘타고난다’. 주자학은 여기서 시작한다. 불교의 영향인지도 모른다. 율곡이 말한 ‘오래된 오염(舊染)’ 안에는 선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 오염은 후천적 환경과 경험에 따라 누적되기도 하고 경감되기도 한다.

11) 실제 주자학자들은 당면한 사회적 급선무보다 한가하게 정좌와 자기 대면에 몰두하는 정치적 책임을 등한히 했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다. 심지어는 불교의 탈속과 무책임을 따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무성했다.

12) 이 각성이 뚜렷해지는 만큼, 그의 돌파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위협을 감지하는 것과 반사적 행동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듯이 지식과 행동의 분열은 우리가 사태를 ‘진정’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부의 목적은 그런 점에서 '정화'라고 할 수 있다. 오염을 일상에서 제거해나가는 노력이 깊어지는 만큼, 사태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와 더불어 억압된 인간의 본질(性)이 숨을 쉬고, 자유를 얻기 시작한다. 그 안에 예를 들면 타자와 공감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근원적 욕구(理)들이 오랜 억압과 마비를 털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타자와 공감(仁)하고 세상의 경이와 대면하는 기적을 연출한다. 판단이 합리화되고(智),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커지며(義),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禮)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율곡은 말한다. "이 회복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더 이상의 선을 따로 보낼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자학의 두 가지 특징을 노트해두고자 한다.

(가) 주자학의 최고 경지는 바로 자연(自然)이다!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꿈꾸어야 할 모든 것이다. 성인(聖人)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거나 신이(神異)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자연스런, 이를테면 지상의 현자를 가리킨다.

(나) 앞에서 적은 대로, 유교는 세속의 가치에 휩쓸리지 말라 한다. 그렇다고 세속을 넘어 은둔이나 초월을 꿈꾸는 것도 아니다. 유교의 장소는 '일상(日用)'이다. 밥 먹고, 거처하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곳, 그곳이 유교가 임하는 성소(聖所)이다. 유교가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에 추동되고 있으면서도, 종시체제나 도그마로서 '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특수한 담당자로서 '사제'를 두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2. 인간은 평등하다(1-2)

지금 평등은 신분적 차별이나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용어이다. 지금 "인간이 평등하다"고 내건 것은 좀 다른 맥락이다. "성학(聖學)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각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조건과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유교 국가 조선은 신분사회라고 한다. 주자학의 독특한 '기질론'이

그것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책상을 내리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기질'이 체력, 재능, 도덕감 등에 유전적 차이를 갖고 온다는 주자학의 이론을 확장적으로 읽은 결과이다.

그러나 그 반대쪽이 더 강렬하지 않은가. 어째 기(氣)만 읽고, 이(理)는 보지 못하는가. 지금 율곡이 말하듯이 인간은 성숙의 가능성과 조건에서 예외 없이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만일 그렇다면, '기질(氣質)'로 인한 차이는 우연적이고, '성리(性理)'의 수원지는 동등한 가능성이자 보편적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성을 말할 때,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인간성(성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격(기질)'의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고착의 현실적 차이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수준과 강도의 노력을 요할 것은 당연하다.

가령, 요순이나 공자처럼 타고나면서 길을 알고, 행동이 곧 규범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生而知之), 학습을 통해 옛길을 인도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學而知之),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이 길에 마침내 눈뜨게 되는 사람도 있다(困而知之).¹³⁾ 또 달리, 기질이 맑고 순수한 사람(淸粹)은 지식과 도덕을 자연으로 갖출 것이고, 탁하고 불순한(濁駁)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할 수 없다. 두꺼운 장애를 만난 사람은 운명을 탓할 수밖에……. 그러나 율곡은 주자학의 원론을 따라, 아무리 두꺼워도 노력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등을 두드린다. “누구나 인간성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 주자학은 동서양의 인문적 철학과 종교와 같은 목소리로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설파하고 있음을 유의하자.

3. 강남은 성형외과로 붐비는데(1-3)

성격은 개조될 수 있다! 이 믿음이 관건이다. 율곡은 체력이나 용모는 어찌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지금 시대 같으면 아마 좀 달리 말했을 것이다. ‘약한 체력은 트레이닝을 통해, 키는 성장판 등을 자극하여, 무엇보다 얼굴은 성형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듯이 마음 또한 그렇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마음의 개조가 키나 용모보다 더 근본적인데, 사람들

13) 『中庸』, 20장. “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之, 一也. 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強 而行之, 及其成功, 一也.”

이 ‘몸’과 ‘얼굴’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다고 혀를 찼을 듯하다. 선배 가운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맹자의 유명한 비유가 있다. “무명지가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용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불원천리, 그 먼 길을 나설 것이다. 아픈 것도 아니고, 일에 방해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그런데 자기 마음이 것처럼 ‘마비되어’ 있는데도, 고칠 생각을 않는다!”¹⁴⁾

맹자는 “이렇게나 일의 경중, 가치의 우선순위를 모를 수가(不知類也)”라고 탄식한다.

왜 이 프로젝트가 그토록 소중한가? 율곡은 말한다.

‘지혜’보다 예쁜 것이 있으며, ‘현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랴. 그런데도 무지와 어리석음에 안주하여, 하늘이 내게 내린 본성을 훼손시킨 채 살고 있단 말인가.

도야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특히나 지금 이 시대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사슬에 묶여 있다. 보이는 사슬은 부수었는지 모르나, 보이지 않는 사슬이, 익명의 권위가 인간을 부자유스럽게 하고 있다. 마스크와 광고, 선전이 거대한 환상을 심어놓고,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뻗속 깊이 세뇌되어 있다. 이기의 감옥을 부수고, 환상의 그물을 찢는 것이 동서양 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이다. 이 지혜 없이 최종적 행복은 없다. 그래서 고전을 읽고, 덕성을 함양한다.

4. 결단, 그리고 훈련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말했다. “삶과 죽음을 모르고, 어떻게 태연할 수 있겠느냐.” 삶의 기술은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이되, 우리는 무엇이 그리 바빠서 맨 나중에 미루어놓았나? 이 시대, 어느 날 불어온 인문학 열풍은 뒤늦은 각성의 결과인가, 아니면 경제적 풍요가 가져다 준 자연스런 귀결인가?

14) 『孟子』 告子 上, 11장. “孟子曰, 今有無名之指, 屈而不信, 非疾痛害事也. 如有能信之者, 則不遠秦楚之路, 爲指之不若人也. 指不若人, 則知惡之, 心不若人, 則不知惡. 此之謂不知類也.”

유교는 ‘인문’을 통해 성자(聖人)를 기약한다. 그래서 왈 ‘성학(聖學)’이라 부른다. 학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낯설게 들릴 것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종교의 몫이었다. 그런데 유교는 “저 너머의 신에 기대지 말라”고 외친 점에서 종교가 되기를 거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에 기대지도 않고, 오직 세속적 공간의 일상 속에서, 합리적 이성에 의존해서, 자각적 훈련을 해나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반신반의, 혹은 주저하는 우리에게 율곡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다그친다. “요순(堯舜)이나 공자(孔子)가 하등 너와 다를 바 없다. 제발 자포자기(自暴自棄)하지 말라.”

여기 관건은 입지(立志), 즉 실존적 결단이다. 성인, 즉 “최대한 자신이 되는 일”의 가능성과 기반이 오직 나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 프로젝트는 타인에 의존하거나 환경을 비난할 여지가 없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이 일을 미룰 핑계도 찾을 수 없다. ‘학문’은 당장 내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열망이 있다면 바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태만과 의혹의 적을 물리치고 길을 나서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V. 유교, 잊혀진 삶의 길

유교가 제창하는 이 길은 과연 현대에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에릭 프롬은 산업사회의 이상인 ‘위대한 약속(Great Promise)’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백일몽이라고 말한다. 자유는 환상이고, 우리는 남의 욕망을, 권력과 매스컴의 욕망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자원과 환경 문제가 인류의 목덜미를 쥐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지구)의 생존 자체가,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¹⁵⁾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를 묻는다. 보통은 잊고 산다. 대학은 이 관심에 응답하기를 접고, 그동안 교회에 전적으로 맡겨놓았다. 대학은 학술연구에 ‘몰인’하고 있고, 인문학 교수들조차 더 이상 ‘가치를 문제 삼지 않는다.

15) 에릭 프롬, 차경아 역, 『소유냐 존재냐』, 서장, 까치, 2007.

정치적 공정성(political correctness)은 다양성과 상대성의 팬스 뒤에서 가치를 언급하기를 꺼린다. '가치'는 다만 권력이나 선호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스 로마의 현자들과 더불어, 동양의 지혜는 이 '물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 '응답'한다. 그리하여 '철학(philosophy)'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삶의 기술(ars vitae)'을 위한 노하우를 가르친다.

이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 '인문학(Humanities)'이고, 그 매뉴얼을 '고전(Classics)'이라 부른다.

동양 정신은 언필칭 도(道)를 다룬다. 유교 또한 자신을 도학(道學)이라 불렀듯이, 삶의 길을 담고 건전한 문명의 원리를 디자인했다고 자부했다. 『격몽요결』은 그 '인간의 도정'을 위한 기초, 혹은 첫걸음을 담고 있다.

여기 '팔'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주저 『성학집요(聖學輯要)』에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 잊지 말자. 위로는 치유가 아니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은 쾌락이 아니라, 덕성이라는 것을……."

『격몽요결』은 주자학의 입문서이다. 주자학의 문법과 이념, 그리고 방법이 간결하게 담겨 있다. 이 논문은 서문과 1장을 집중적으로 탐험해 본 것이다.¹⁶⁾

분석과 해설은 서문과 1장에 국한했다. 주자학의 강령이 여기 압축되어 있다. 다음 2장부터는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을 적었다. 오래된 습관을 교정하고, 마음을 수렴하며,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구체적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초적 조언들이 담겨 있다. 후반부는 구체적 지침인 만큼 숨겨진 함축이나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

끝으로, 17세기 스페인의 현자의 경구를 전해 드리고자 한다.

한마디로 성자가 되라. 이로써 모든 얘기가 끝났다. 덕은 완벽함을 묶어주는 끈이며, 행복의 중심이다. 덕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해주며,

16) 주자학 연구들은 ① 텍스트를 한학적으로 번역하고, 그 낯선 개념과 어법들을 연산해 나가는 고전적 경향들이 있고, ② 현대적 용어와 지배적 이론을 중심축에 놓고 텍스트를 비평해나가는 경향들로 대별될 수 있을 듯하다. 편의상 전자를 '전통적-동양적' 후자를 '현대적-서구적' 접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듯하다. 나는 좀 다른 길을 제안한다. 둘의 장점은 흡수하되, 더 근본적으로 텍스트를 깊이, 그리고 특정한 선입을 배제하고, 읽는 법을 제안한다. 고전 한문으로 쓰여진 텍스트의 이질성을 향해 이해의 닻을 내리는 것.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는 물론, 무의식적 함축까지 내려가 보아야 한다. 그 발견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적 언어로 인해 완전히 다른 방식의 '번역'과 '비평'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현명하고 용기 있고 살값고 정직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이의 호감을 사고, 진실되게 하여 그를 모든 점에서 영웅답게 해준다. 덕만이 진정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¹⁷⁾

17) 발타자르 그라시안 저, 박민수 역, 『세상을 보는 지혜』(아침나라, 2009).

참 고 문 헌

『論語』.

『孟子』.

『栗谷先生全書』 卷14, 雜著 1, 瑣言.

『栗谷先生全書』 卷27, 擊蒙要訣.

『中庸』.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 박민수 역, 『세상을 보는 지혜』. 아침나라, 2009.

앤서니 크로먼 지, 한창호 역, 『교육의 종말』. 모티브북, 2009.

에릭 프롬 지, 차경아 역, 『소유냐 존재냐』. 까치, 2007.

국 문 요 약

이 글은 율곡의 『격몽요결』의 서문과 1장의 분석이다. 그는 첫머리에서 인간이 탄생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형상을 완성한다고 역설한다. “학문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잡초로 뒤덮이고, 식견은 캄캄해진다.” 이 학문의 목표는 권력이나 지배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탈속의 초월이나 도피도 아니다. 그는 유교 인문의 기획이 그동안 세상의 외면을 받아왔다고 탄식한다.

이 삶의 기술은 낯설고 예외적이기에 ‘결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삶의 습관을 바꾸고, 필요한 심신의 훈련이 따라야 한다. 그 중심에 독서를 통한 지적 연마가 있다. 유교는 사후의 축복을 믿지 않고, 삶이 윤회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유교의 목표는 이 지상에 있다. 즉, 그동안 예고와 나르시시즘으로 마비된 자신 내부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솔개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강령이 『격몽요결』의 서문과 1장에 담겨 있다. 2장부터는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심신을 훈련하는 법, 그리고 독서와 기본적 예절 등이 담겨 있다.

투고일 2015. 6. 23.

심사일 2015. 7. 28.

게재 확정일 2015. 9. 3.

주제어(keyword) 율곡(Yi I), 위기지학(learning of myself), 유교(Confucianism), 일용(everydayness), 자기성찰(self-reflection), 독서(reading the Classics)

Abstracts

Reading “The Secret of Expelling Ignorance”

Han, Hyong-jo

“The Secret of Expelling Ignorance” has been used as a primary manual of the Confucian way of living. Yi I(1536-1584) advocated strongly that human beings, at birth, are far from being complete but in “transition,” waiting to be overcome as in Zarathustra’s famous aphorism.

So the goal of ‘this Confucian learning’ lies not so much in secular power or in the hermit, as in the wisdom of everyday life, which could be called the *ars vitae*. In this sense, it may seem strange to hear that Confucianism was far from popular but exceptional in the 500 years of Joseon era as in our times.

The first step towards Confucian wisdom is the existential determination to break through the “everydayness,” to use Heideggerian phraseology, followed by changing one’s own familiar habits and accustomed attitudes. The crucial part of this learning requires the courage to be alone, in other words, to cope with one’s fear of social estrangement.

While Confucianism does not contain beliefs in the after-world, and therefore, God’s blessing is lacking, the fulfillment of this project is to actualize one’s own nature into being. The Sage in Confucianism can be explained as a fully mature person who can respond to every situation in a creative and spontaneous way.

The preface and first chapter of this book outlines the aim and the conditions of this learning, and the chapters thereafter show their concrete practices, i.e., discarding bad habits, enforcing correct posture, good manners, self-reflection, and most of all, reading the Classics.